

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수인분당선 수내역(2번 출구)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 대해 점검 방법, 유지보수 주기의 준수여부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여부, 철도시설유지보수 적절성, 「철도안전법」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.

- 6월 8일 오전 8:25분경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자 14명이 발생하였습니다.
 - 부상자 14명 중 11명은 귀가조치 하였고,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병원으로 함께 이동하여 부상자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사고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, 철도경찰,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,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등에 있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인원 (044-201-4603)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희민 (044-201-4623)
		담당자	서기관	오한영 (044-201-4624)